

제4절 중남미권

1. 중남미권 만화 시장 개요

2010년 중남미 만화 시장은 2억 6,8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북반구의 대부분 권역에서 2009~2010년 사이에 만화 시장 규모가 축소된 데 반하여, 중남미권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0~2015년 연평균성장률은 4.1%로 권역별 평균 성장률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3억 2,70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행본 만화 시장 부문의 디지털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4> 중남미권 만화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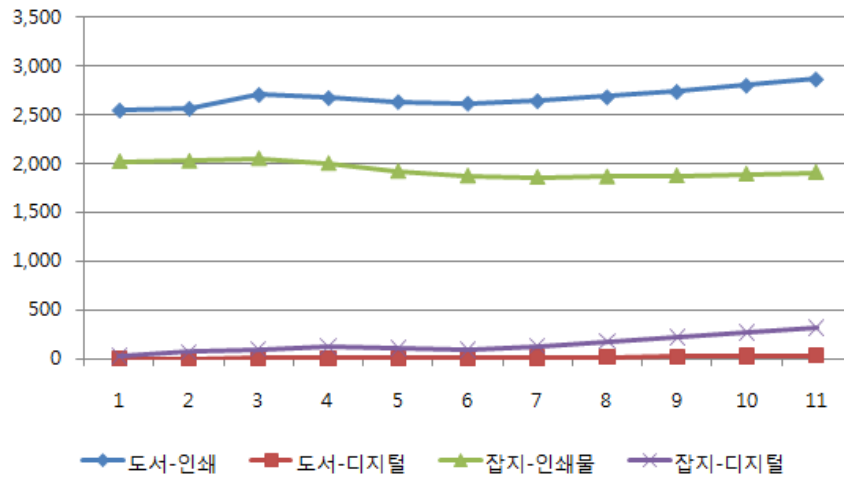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도 서	소계	87	89	91	98	97	98	100	102	104	107	110	2.3%
	인쇄물	87	89	91	98	97	98	100	102	104	107	110	2.3%
	디지털	0	0	0	0	0	0	0	0	0	0	0	-
잡 지	소계	142	154	163	167	168	170	176	186	196	206	217	5.0%
	인쇄물	142	152	161	162	163	165	170	176	184	191	199	3.8%
	디지털	0	2	2	4	5	5	6	10	12	15	18	31.9%
인쇄물 소계	228	241	252	261	260	264	270	278	288	299	309	3.3%	
디지털 소계	0	2	2	4	5	5	6	10	12	15	18	31.9%	
합계	229	242	254	265	265	268	276	288	300	314	327	4.1%	
전년대비성장률		6.0%	4.9%	4.3%	-0.1%	1.2%	3.0%	4.2%	4.3%	4.6%	4.4%		

자료원: PWC(2010); Frankfurter Buchmesse; Nielsen Company 외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서 인쇄물 시장이며, 향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 역시 디지털 도서 시장이나, 디지털 잡지 시장 역시 연평균 28%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잡지와 도서를 포괄한 디지털 시장의 성장률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9.3%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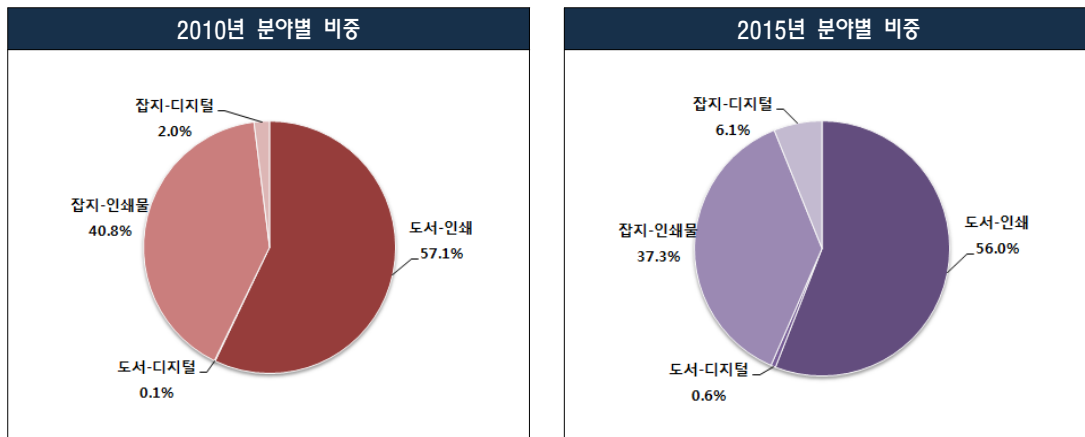
[그림 III-16] 유럽권 만화 시장 부문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유럽권 만화 출판 시장의 2010년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인쇄물 도서 시장이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다소 줄어들어 56.0%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0년 디지털 시장의 비중은 유럽권 만화 시장 전체의 2.1%인데, 2015년에는 6.7%로 증가하리라고 전망된다.

[그림 III-17] 2010년과 2015년 유럽권 만화 시장 분야별 비중



브라질 최초의 만화는 1869년에 출간된 안젤루 아고스치니(Angelo Agostini)의 <노 김의 모험 또는 궁정으로의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이 출간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1월 30일에 ‘만화의 날’ 행사가 열린다.

만화는 과거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특정 독자층에 국한된 장르로 간주되었으나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만화로는 2008년 권위 있는 만화상인 아이스너상에서 세 개 부문을 휩쓴 가브리엘 바(Gabriel Ba)의 작품이나 데비르(Devir)사의 아당 이투루스가라이(Adao Iturusgarai)의 『알리니(Aline)』 등의 유명 시리즈(방송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됨), 파비오 문(Fabio Moon), 하파엘

그람파(Rafael Grampa)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조 사코(Joe Sacco)의 『안전지대 고라즈데』, 『팔레스타인』 등 미국 독립만화, 프랑스 및 벨기에 만화들도 서점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트로이의 랑피스트(Lanfeust de Troy)』, 에마뉘엘 기베르(Emmanuel Guibert)의 『평화의 사진가(Le photographe)』, 다비드 베(David B)의 『간질병자의 승천(L'ascension du haut mal)』 등이 콘라드(Conrad)에서 출간되었으며, 콤파니아 다스 레트라스(Companhia das Letras)에서 나온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는 출간과 동시에 웹상에서 동명 애니메이션이 개봉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 문학작품을 만화로 개작하여 출간하는 것이 대 유행이어서, 아지르(Agir)는 ‘만화로 읽는 세계 고전(Grandes classiques em graphic novel)’ 선집을 출시하기도 했다.

한편, 브라질의 만화잡지는 아동용과 성인/청소년용으로 구분된다. 5대 어린이 잡지 출판사로는 글로부(Globo), 콘라드(Conrad), JBC, 그루푸 폴랴(Grupo Folha), 아브릴 조벵(Abril Jovem)이 있으며, 2002년 ‘어린이 청소년 잡지 시장 지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출판사에서 내놓는 잡지 100여 종의 총 판매부수는 3천만 부를 상회하며, 이 중 약 60%가 포켓형 어린이 만화 잡지로 추정된다. 평균 가격대는 5헤알(약 2유로)이며, 신문 가판점에서 판매된다. 신문 가판대에서는 일련의 슈퍼히어로(배트맨, 플래시 고든, 스파이더맨, 판타스틱 4 등)가 등장하는 만화 잡지도 판매되기 시작했다.

성인/청소년 대상 만화 잡지 출판사로는 파니니 코믹스 브라질(Panini Comics Brazil, DC Comics 및 Marvel과 라이선스 체결), 미도스 에디토라(Mythos Editora, Sergio Bonelli Editore와 라이선스 체결), 콘라드 에디토라(Conrad Editora, 일본 만화 중심), 아브릴 에디토라(Abril Editora, 심슨 가족, 슈퍼히어로 만화 중심), 브레인스토어(Brainstore) 등이 있다. 이들 잡지도 신문 가판점을 통해 판매되며, 매년 잡지 5백여 종, 1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며, 평균 판매가는 3~6헤알(1~2유로)이다.

또 다른 시장으로 청소년용 일본만화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콘라드와 JBC 두 출판사가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다. 콘라드는 <드래곤볼 Z>과 <세인트 세이아>, JBC는 일본 만화 시리즈 열다섯 편 가량을 출간하는데, 평균 발행부수는 5~7만 부에 달한다. 일본 만화 역시 신문 가판대에서 판매된다. 일부 브라질 출판사들은 일본 만화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들을 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만화 확산 또한 활발한데, 웹툰 등의 무료 업로드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웹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출판에 이르는 안드레 다메르(Andre Dahmer)<데지데라타(Desiderata)>¹⁾와 같은 사례도 있다.

세계은행은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브라질이 2016년에는 세계 5대 경제 대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화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시장과 함께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 중 하나가 브라질 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http://malvados.blogger.com.br>